문턱 낮춘 교계 복지관 인문학 강좌 호평

인문학 강좌가 복지관까지 찾아들었다.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자 몇몇 복지관은 정기 강좌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인문학은 팍팍한 사회를 때로는 냉철하게, 가끔은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게 하고, 삶을 한 단계 성숙해진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어르신들도 주부들도 사춘기 시절 이후 잊어버렸던 나에 대한 질문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인문학 강좌 수업현장(사진 아래)과 진지한 어르신 수강생 모습.

노친네인가 선배시민인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하기 어렵나요?"

"제 자신요"

"왜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죠"

막힘없는 대답이 좌중에서 흘러나왔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서는 날선 정치이야기도, 불만 가득한 사회이야기도 없었다. 수업에서는 사랑, 이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5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인문학교 두 번째 교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선배시민의 공동체 가꾸기' 란 주제하에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10회기 분량의 인문학 강좌였다.

수업은 어르신들이 공동체원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고 선배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수적이고 사회에는 부담만되는 능력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벗고 후배시민들의 상담자와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스스로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강의가 끝나는 8~9월에는 선배시민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실행해볼 계획이다.

이날 주제는 인간존재론이었다. 19명의 어르신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인간존재에 대해 탐구하면서 나는 결국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주변 사회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맡은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사회복지학)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지식인들의 어록을 자주 인용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작은 흙무더기다."

수강생들은 한비자의 말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임을 되새겼다.

윤무영(76) 어르신은 생각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문학 강좌를 신청했다. 가입해둔 시사토론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했다. 젊었을 적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그는 수업내내 필기에 열심이었다. 그는 오늘 수업 중 가슴에 남는 어귀로 "사랑은 이해"를 뽑았다.

지적 호기심 앞에서는 나이가 무색했다. 심리학, 종교철학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어르신들도 여럿 있었다. 어르신들은 질문에도, 답변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선생님들이 바라는 이상적 학생의 롤모델이었다.

수업만족도는 별 네 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한다. 2008년부터 철학, 문학 등의 주제로 꾸려져온 커리큘럼은 양질의 수업수준을 자랑한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균형적 사고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훌라춤추며 하와이 문화를

이외에도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에서 진행하는 '하와이 언어와 문화'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철학 일색 인문학교실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문강좌다. 생소한 하와이 문화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 수업의 강점은 귀로만 듣는 수업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참가자들은 하와이 전통무용인 훌라춤을 추며 몸으로 하와이 문화를 익힌다. 또한 하와이 노래를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안해 불러보면서 다양한 언어 속 문화와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자들의 호응도는 높다. 특색있는 주제 덕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잠재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6월 28일까지 3개월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도 있다. 인문학적 개념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해 성찰해보고 이상적 지역 공동체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총 8회기의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표〉 주민 위한 인문학 강좌

장 소	주 제	기 간
서울노인복지센터	선배시민의 공동체 가꾸기	5.15~7.17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하와이 언어와 문화	3.21~6.28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힐링에서 필링으로	5.8~6.2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혼돈과 전망	4.1~7.1
강남시니어플라자	동양철학, 서양사, 미술사	3개월 과정
벽고을 작은도서관	한국 전통예절 이해와 체험	6.12~8.28

자비나눔 통장 7천만 구좌 돌파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지원에는 약 1700만원 모여

계좌 개설만으로 나눔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자비나눔 통장이 최근 7천만 구좌를 돌파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지난 1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예금상품 자비나눔 통장은 연평균 잔액의 0.1%를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불교계 최초 나눔 통장이다. 가입자는 목돈 마련과 동시에 별도 비용없이 소외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비나눔 사업이다.

현재 자비나눔 통장의 이율은 시중은행 최고 금리인 3.1%다. 후원 및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최대 0.3%의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된다.

한편 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는 국내외 장애인 · 난치병 어린이지원에 모연금 전달 줄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19일 총무원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제14회 국내외 장애인 ·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고운사와 함께 '난치병어린이지원 모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고운사는 이날 93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4월 한 달간 고운사 신도회, 의성사암연합회, 의성불교신도연합회, 의성불교대학총문회, 의성군청불자회, 의성군노인복지관에서 모연한 금액이다.

난치병어린이지원 모연금 후원에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4군데의 사찰이 동참해왔다.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용주사 225만원, 동화사 100만원, 통도사 300만원, 여주 신륵사 170만원 등을 후원해온 것이다. 직지사와 선운사도 조만간 모연금 전달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받은 모금액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동참한 현장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을 합하여 오는 6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난치병 환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단측은 "지난 2월 경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며 "6월 중 선정회의를 개최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환아 35여명을 선정하고,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걷기 행사 성황리에 성료


5월 17일 열린 생명나눔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남산순환로를 걷고 있다.

제7회 '생명존중 나눔걷기 축제'가 5월 17일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3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광동고등학교와 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비의 헌혈을 진행한 후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학생 대표들은 각각 163매, 301매를 기증하며 형편이 어려운 혈액질환 환자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만해광장에 설치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이는 179명. 참가자들은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준비한 도형심리학, 우울증 자가진단 체험관과 자비명상에서 마련한 명상 홍보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건강 체크존, 페이스페인팅, 두더지게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가족, 연인 등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은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순환로 4km를 걸으며 걷기명상, 지압코스, 포옹코스 등의 테마구간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아웃사이더와 팝핀현준은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생명나눔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 헌정식도 열렸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100명 이상 추천하여 헌액된 주인공은 법륜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총무), 성현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종회의원),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으로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 4월 선정환자로, 골육종 투병 중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선수의 지원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노 선수의 부친은 500만원을 전해 받으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완쾌되어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청솔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약


청솔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전제품을 후원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 부설 경기동부하나센터는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남월드휴먼브리지(대표 최순식)와 5월 22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실에서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봉사활동, 경기동부권역 신규전입자 물품지원사업, 행사 및 프로그램 협력사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기동부권역에 신규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물품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 경기동부권역으로 신규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가전제품(쿠쿠압력밥솥)이 지원된다.

전기밥솥을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한약지원


강북장애인복지관은 한의원과 연계, 장애인에게 한약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에서는 참사랑한의원과 연계해 5월 13일 장애인에게 개별맞춤진료를 통한 한약을 지원했다.

참사랑한의원은 2011년 1월 복지관과 협약을 맺은 후 매년 건강관리가 필요한 20명의 장애인을 선정, 개별맞춤진료를 실시해 보약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무료진료와 한약을 지원받은 김 모(76세) 어르신은 "벌써 아픈 곳이 다 나은 것 같다"며 "일일이 손도 잡아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약"이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윤지열 참사랑한의원 원장은 "올해는 30분한테만 한약지원을 하지만 내년에는 40명, 내후년에는 50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장애인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매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며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